



민선 7기 제주도정 문화 공약 무얼 담았나

한짓골아트플랫폼 조성·도립예술단 신설

제주형 인프라구축 5개 과제 소요 예산 4년간 1642억여원 재밋섬 매입 예술인회관으로 도립극단과 국악단 설립 계획 제주학센터는 재단법인 추진

종합문화센터 건립 등 불교 문화 관련 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인 한짓골아트플랫폼 계획도 문화 분야의 앞장을 차지하고 있다.

▶도민 체감하는 인프라 구축 목표= 문화 분야 공약은 문화예술체육으로 묶인 탓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 거점형 콘텐츠 기업과 창작지원센터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기회 확대 등 5개 이행 과제에 소요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642억1900만원에 달한다.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 사업에는 2018년 제주학센터의 재단법인 전환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이어 내년 제주학연구재단을 설립 운영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같은 시기에 가장 '탐라

사료관' 설립 운영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대학교문화센터, 국제불교교류센터, 산남지역 불교문화원 등 불교종합문화센터도 2022년까지 차례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 사업은 제10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유치(2019년 7월), 탐라제주대 백과 사전 편찬(2018-2012년) 등이 주요 사업으로 명시됐다.

거점형 콘텐츠 기업과 창작지원센터 지원 과제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문화융합지구, 폐교 등 이용 권역별 거점형 창작과 향유 기회 확대 등 5개 이행 과제에 소요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642억1900만원에 달한다.

▶제주국제음악콩쿠르 개최도 등장=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서는 제주도에 재단이 추진했던 제주예술인회관(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제주도에 재단 육성기금 112

억원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 뒤 국비·도비 69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2019년 12월 개관하는 방안이다. 2021년 개관 예정인 제주문화관에 이어 2022년까지 총 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립극단과 제주도립극단 설립도 연도별 실천계획을 짰다. 제주도 산하 문화기관·단체, 문화기반 시설의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문화전문인력 확대도 인프라 확충 실천 계획에 담겼다.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회 확대 과제로는 제1회 제주국제음악콩쿠르 개최, 제주미술제 확대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담았다. 제주국제음악콩쿠르는 피아노, 바이올린, 지휘 부문으로 2020년 7월 첫 개최 이후 해마다 열기로 했다. 올해 처음 대규모로 시도되는 제주미술제는 앞으로 격년제 행사로 치른다는 방안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립한판

<120>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영매: "산포조 어디엔 허멍 홀데다마는
궤기 하영 뉴아지는 디가 잇젠 홀데다."
홍배: "영매야- 산포조가 맞인 거 님은 디
나가 잘 알지 못하는 디어께."
하르바지: "아으덜야- 궤만셔보라. 그디 영주십경 중 허난디
'산포조어'엔 홀다. 세백이영 주낙이민 뉴시꾼일이 된 산포조구
바당이 모다정 홀데로 뉴시질 허는 디로 유행허어."

* 제주어 풀이

* 어디엔 허멍홀데다마는 : 어디라고 하던데.
* 궤만셔보라 : 잠깐 있어보라.
* 영주십경(성산일출,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석, 녹담만설, 영실기암, 산방굴사, 산포조어, 고수목마) : <이름>에부터 알려진 제주도의 풍광 좋은 열곳을 말할.
* 산포조어 : <이름>제주 산지대에서 작은 배를 타고 밤이면 등불을 밝혀 낚시하던 풍광으로서 영주십경 중 하나이다.
* 세백이영 : 세백이나. * 주낙이민 : 저녁 때면.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대어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때씨(명사)/<역은>역은씨(의문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 이 코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 참여 늘리고 무형문화재 축제 확대

제주예총 제57회 탐라문화제 내달 10~14일 탐라문화광장



지난해 탐라문화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처음 열려 도심형 축제로 변모를 꾀했다.

다시 원도심으로 향하는 탐라문화제가 청년 예술인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제주예총, 회장 부재호)는 탐라문화제 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월 10~14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57회째를 맞는다. '모다일영 홀린 잔치 재미지게 놀당갑서'라는 제주어 슬로건을 내걸고 기원축제, 문화의 길 축제, 제주문화축제, 참여문화축제를 꾸민다.

올해는 산지천에 가로·세로 각 15m 크기의 무대가 설치된다. 개·폐막식, 국내외 교류 행사, 예술 문화 공연 등이 산지천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탐라문화광장 문화의 길에 청년예술인 공간도 조성한다. 거리페스티벌을 통

해 제주의 젊은 밴드, 청년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연이 잇따른다.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연극, 댄스, 동아리 공연 등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행사가 이어지고 건립동과 일도1동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향토음식점이 차려진다.

무형문화재 축제도 확대 운영된다. 제주도무형문화제는 지난해 7종목에서 이번엔 16종목으로 크게 늘었고 초청 무형문화재도 4종목으로 증가했다. 문화교류 행사 역시 국내 8개 지역 10팀, 국외 3개국 10개 지역에서 참가하는 등 작년 보다 갑절 가량 늘어났다. 진선희기자

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품 돌문화공원에서 자료 목록 요청

속보=제주돌문화공원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달 20일까지 민속 자료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은 2013년 6월 제주도의회가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 자료 이관을 부대조건으로 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2020년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완공에 맞춰 민속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1984년 개관 이래 인문·자연 자료를 아우른 제주 대표 박물관으로 기능하는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되면서 논란(본보 7월 31일자 8면)이 이어져왔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측은 이관 결정이 내려진 2013년 이후 소장품 중에서 기증자료, 민속자료실 전시 자료 등을 뺀 민속품 목록을 작성해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체 8000여점의 민속 자료 중에서 2500~3000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민속 자료 이관 목록이 제출된 이후 두 기관이 상생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정책 결정을 번복하기는 힘들겠지만 도민속자연사박물관도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도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빅데이터 양성교육 진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

초로 특강(9월 28일)이 1차로 진행된다. 2주 후(10월 8~13일)에는 정규강좌가 이어진다. 정규강좌는 데이터 분석과 통계에 필요한 기계학습용 엔진 등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된다.

앞서 이달 14일 오후 2시엔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기초상식 교육'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 064)735-0615. 진선희기자

“고교 국어교과서 제주어 바로잡아야”

김순자 연구위원 분석
높임말·호칭 등 부적절
발음대로 표기 사례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제주어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부적절한 교의 의뢰를 받아 비상출판사에서 펴낸 고 1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서에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로 예시된 '무승 거 허엄나'는 '무승 거 험시나?' 등으로 바뀌어야 옳다. '무승 거'는 '무승거'를 발음대로 표기하다보니 발생한 오류로 추정했다.

'뒤투파?'는 할머니가 손자한테 하는 표현이 아니다. '-우파'는 높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야기할 때는 '무승 거?' , '무승거니?' 처럼 표현하는 게 좋다고 했다.

손자가 할머니를 부를 때 썼던 '할망'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할망은 지칭은 가능하지만 호칭으로는 부적절한 어휘다. '맛 조수다게'에서 '-수다' 역시 높임말이어서 손자한테 하는 말이 라면 '맛 좋다' 정도라면 된다. '-게'는 없어도 되는 말이다.

현재 해당 교과서는 제주지역의 경우 대기고, 제주대부고, 제주외고, 제주중앙고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희기자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사무실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ihalla.com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한라일보 1부면 경조사는 쟁점대!

201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3회, 제주선 '최다' 기록

- 도내 언론사 최초 '미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7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승진 부이사관

정태성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사람들 일동

승진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경영관리과장)

이영준

사무관(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경영관리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형·누나 일동